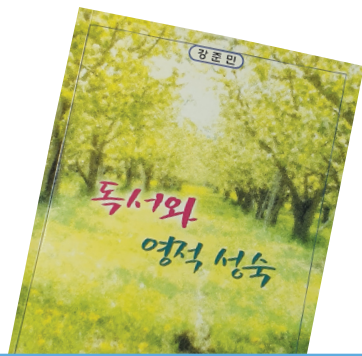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_ 마태복음 28:19-20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하나님 백성의 선교 요약 | 6 | 청년부 / 어와나 | 9 | 부임인사 / 아동세례 신설 |
| 3-4 | 신년설교요약 / 신년특새 스케치 | 7 | 늘푸른대학 후기 | 10 | 교회사용설명서 |
| 5 | 사역부서별 추천도서 | 8 | 외국인유학생선교부 | 11 | 십자말씀이 |

2024년 함글함울의 1면은 여러분께 드리는 공간입니다

사역 소개와 후기

신앙간증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글

겨자씨와 성도의 교제 이야기 등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원고를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통해

그 소식을 1면에 실어드립니다

pclhamletter@naver.com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 백성의 선교⑨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백성 2

감탄할 만한 매력 - 예레미야 13:1-11

‘아내가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을 때, 나는 당연히 그 옷이 멋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칭찬하는 것이다. 옷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준 것일 뿐이다. 옷을 칭찬한다 해도, 내가 칭찬하는 것은 그녀다. 이와 같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칭찬한다면, 실제로 칭찬받는 분은 바로 야웨이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 주기 위해 입으시는 장식용 옷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선교가 어떻게 이 비유에 적합한지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한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자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입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가?

"감탄할 만한 매력." 그 감탄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나 교회의 집단적 증거에서나 감탄할 만한 것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세상이 우리가 대표하는 하나님에게서, 예복이나 파티복처럼 우리를 입기 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경배할 만한 어떤 것을 발견할 희망은 아주 적다.

열방이 예배로 나아옴 -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신다(이사야 60:1-2)

이사야 60장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뜻과 세계 전체를 위한 그 뜻의 보편적 함의에 대해 말하는 풍요로운 장이다. 이 장의 전반적 내용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실 때,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계가 평화와 정의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속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기꺼이 회개하고 구속을 받으려는 자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60:1이 선포하는 내용이다. 예언자 이사야의 환상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빛이 밝아지며,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공유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세계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구속자와 구세주로 오셔서, 둘 모두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본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비추어 읽는다. 나사렛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세주가 되셨다.

열방이 예배로 나아옴 -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온다(이사야 60:3-16)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하러 오시면, 열방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다. 빛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빛에, 곧 이스라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끌려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열방이 예배로 나아옴 -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온다(이사야 60:4,9)

시온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일까?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모여들면서, 이같이 열방이 모여드는 일이 일어난다.

열방이 예배로 나아옴 - 열방이 선물들을 갖고 온다(이사야 60:5, 9, 11)

예언자 이사야는 열방이 도처에서 그들에게 임한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가장 귀한 선물을 가져오는 모습을 상상한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가져왔을 때 그들이 상징했던 것이 바로 이전의 성취였다. 그들의 선물은 모든 열방의 선물을 나타내는 원형이었다. 전 세계의 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속받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장소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쓰일 것이다.

열방이 예배로 나아옴 - 열방이 예배하며 나아온다(이사야 60:6, 7, 9, 13)

열방에 구원과 빛을 가져다주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계가 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될 대상도 이 동일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결과 전 세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빛이 밝아올 때, 열방이 그 빛에 끌려와서 엄청난 다국적 공동체가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갓고 올 것이다.

열방이 예배로 나아옴 - 세상에 평화가 온다(이사야 60:17~22)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러 오셨다면,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큰 변화가 세상에 찾아올 것이다. 그것은 정의와 평화, 폭력과 전쟁의 종식,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임재, 하나님 백성의 도덕적 선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장면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열방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단순히 예견이 아니고 호출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빛의 매력을 현재 변화되고 있는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은 빛을 가져오셨다. 따라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한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눈에 잘 보이는 매력적인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 빛은 '선행'으로 이루어진다. 또 그 윤리적 빛의 특성은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끌어들이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도행정의 교회는 분명히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누가는 그 교회가 일부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도 기록한다. 특별히 그 교회의 사회적·경제적 삶의 특성에 대해 언급한 뒤에 그 점을 강조한다. 서로 돌보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매력적인 새로운 삶의 특성을 나타내 보였다. 사도들의 전도 설교를 강화시켜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특성이었다.

요약

교회의 전도 사역은 세상을 위해 구세주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었다.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두 "강림"사이에,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처 번째 "나타나심"과 영광 가운데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 사이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일반적인 권고를 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4)

신년주일설교요약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예수님도 가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핵심 메세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동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3대 사역에 주목하셨고 교육과 선교를 핵심가치로 삼으셨습니다. 이 가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가정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세워가고, 이제는 뻗어가고 또한 살아가는 가정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꿈을 주신 것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리에서 오직 주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의 이름만 부르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7-8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해로 여겨집니다. 이전의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배설물이 됩니다. 화장실에 가서 볼 일을 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그 배설물을 생각하며 아깝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이 수많은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이후에도 그것을 생각하며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의 바울은 선택의 자리에서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우리도 선택의 자리에서 다른 이름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다는 것은 다시금 결심하고 다짐할 찬스를 맞이한 것입니다. 선택의 자리에서 다른 이름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 부르면 주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로마서 10:14~15a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니까 듣

게 되고, 듣게 되니까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공식입니다. 보냄, 전파, 듣게 됨, 믿음, 주의 이름을 부름.

1866년 9월 2일 한국 땅에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 앞에서 성경책을 강가로 던졌고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품에 안고 나와 자신을 죽인 박충권에게 웃으며 성경을 건네줍니다. 박충권은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보내심을 받고 대동강으로 왔고 죽어가며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충권은 그 예수 복음을 성경을 읽으며 믿게 되었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공식대로 구원받아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의식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가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상 속에서 로마서의 공식을 삶으로 서로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고 또 이웃과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행복하길 원하며 살아갑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행복하면 다른 것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복하지 못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행복해 보일지라도 가족들은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행복하길 원하지만 지향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갈, 세상 속에서 목표 지점이 없이 내 가족, 내 소유만 집착하고 사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만의 족함, 내 가족의 행복함 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정해서 가족이 더불어 함께 힘을 모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동체에 우리의 시간, 물질, 정성을 나누며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에게 전파하고자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충실할 때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우리 가족들의 발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또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함줄함울

2024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

10:15, 고전 9:16, 행 1:8



특별새벽기도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면 지난날을 돌아보며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과 새롭게 이루어내고 싶은 것들에 대해 소망을 품게 되고 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특새 기간의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비장한 주제는 고요한 새벽에 나를 깨우고 특새의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기에 충분했으며 마치 내 삶의 중대한 전환점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6일간 새벽을 깨운 '기도로 살아갑시다'라는 구호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제 삶의 깊은 진리와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날 정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기도할 시간을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들 어차피 안 될 일들은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나의 일상이 기도로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기도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 내 삶에 핵심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도는 이제 제 삶을 인도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제 삶에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며, 일상의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는 데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저의 경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도하면서 저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발견하게 되고, 저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면 그것을 넘어서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빠들어진 내면의 갈등과 까칠했던 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으며, 더욱 굳건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오늘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히스기야 왕이 기도는 저에게도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도전과 고민을 기도로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저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그분의 은혜로 새로워지고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저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 대한 감사,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쓰되 감사함의 고백이 따라야 합니다'라는 말처럼, 저는 기도를 통해 제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던 과거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이런 저의 감사의 태도는 저를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길 잃은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을 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의 편견과 선입견, 배타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분의 감동이 제 삶을 채우며, 이런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저 또한 지금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음은 누군가의 기도 응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저는 세상의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 제 삶을 맡깁니다. 어떤 환경이든 그래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자 영적 호흡이라 합니다. 호흡이 끊어진다면 우리의 생명도 끊어지듯 호흡으로의 소통을 통해 저는 매일 충전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이런 기도에 관한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어 감동을 주기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모두 기도의 능력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최민기 집사 / 2교구



사역별 추천도서
도서소개

더 잘 사역하기 위한 영적 독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일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변화되어 새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변화를 위함이다. 이 변화는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이 있을 때 더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해 성경의 배경적 지식을 얻었을 때 성경이 더 잘 이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많습니다. 매주 듣는 설교를 통해서도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신앙 생활과 사역에 도움이 될만한 좋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각 사역별 추천도서와 책 속의 명문장들을 소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잘 섬기고 있지만, 찬양대원이 찬양에 대해, 예배부원이 예배에 대해, 성찬부원이 성찬에 대해, 교사가 기독교교육에 대해, 겨자씨 인도자가 리더십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역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함줄함울

사역부서별 추천도서

1) 예배부

예배미학(박종환, 동연출판사), 예배의 감각(돈 샐리어스, 비아), 예배, 신비를 만나다(네이션 D. 미첼, 바이북스), 말씀 아래서 드리는 예배(D.A.카슨 외, IVP), 간추린 예배의 역사(윌리엄 H. 윌리몬, CLC)

2) 성찬부

성찬(알렉산더 슈메만, 터치북스), 성찬, 배부름과 기쁨의 식사(이성호, 좋은씨앗),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윌리엄 윌리몬, 비아)

3) 세례부

세례, 예식에서 복음으로(이상훈, 좋은씨앗), 세례와 회심(제임스 패커, 아바서원),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윌리엄 윌리몬, 비아), 개혁주의 세례신학(존 W. 릭스, CLC)

4) 교육위원회(교사)

주일학교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잭 클럼펜하우어, 새물결플러스), 청소년 교사를 부탁해(정석원, 홍성사), 말이 통하는 교사(이의용, 두란노), 리셋 주일학교(박양규, 샘솟는기쁨)

5) 소그룹(겨자씨인도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로버트 뱅크스, IVP), 보석을 캐는 리더(백은실, 두란노서원), 교회를 섬기는 당신에게(리코 타이스, 생명의말씀사), 구역장과 셀리더를 코칭하라(강하룡, 브니엘)

6) 찬양대

찬양대를 위한 예배 메시지(조성환, 예술기획), 찬양대 십계명(김동기, 나눔사), 예배 소품(김정태, 정진형, 지우)

7) 새가족부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김민정, 생명의말씀사)

8) 새벽기도부, 중보기도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최상훈, 규장), 새벽 기도(김남준, 생명의말씀사) / 지금, 다시, 중보기도(이진환, 규장), 중보기도(노만 기러브, 두란노), 더 큰 기도를 하라(알리스테어 벡, 생명의말씀사)

10) 법조선교부 기독교와 법(이병주, 대장간)

사역별 추천도서

영적 독서를 통해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

● 영적 독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게 만들고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준다. 이것이 영적 독서의 축복이다.

● 영적인 독서를 하게 되면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성경 안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또한 경건 서적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 영적인 독서를 하게 되면 꿈이 생긴다. 소원이 생긴다. 소원이 생기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 누군가에 의해서 배운 것과 나 스스로 깨달은 것은 차원이 다르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적인 확신이 있다.

●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지식은 영성에 영향을 준다.

● 영적 독서를 통해서 성숙해지면 요동함을 극복할 수 있다.

● 모든 사역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을 잘 이해해야 한다.

사람을 잘 이해하도록 통찰력을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영적 독서이다.

● 영적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이나 정보를 넘어선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이나 정보를 넘어선 영감을 얻게 된다.

● 영적 독서를 하게 되면 인간의 내면이 훨씬 부요해진다. 내면이 충만해진다. 멋있어진다. 좀 달라 보인다. 우리에게서 내적인 부요가 필요하다.

● 나이가 들어서도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참 축복이 된다. 때로 병상에 있을 때, 아무도 곁에 있기가 어려울 때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 모든 책은 성경에 의해서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 책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 영적 독서를 하라. 지식의 증가가 아닌 삶의 변화를 위해 읽으라.

● 영적 독서를 할 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천천히 소화하면서 읽으라

함줄함울 / 독서와 영적 성숙(강준민, 두란노)

청년부
연탄봉사

연탄창고를 보며 아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23년 12월 23일 청년부 공동체 50여명이 성탄절을 맞아 개포동 구룡마을에 연탄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해 총 2,000장의 연탄을 후원했으며, 청년들이 연탄을 직접 후원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청년부는 22년에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던 연탄봉사를 재개했고, 감사하게 올해도 작년 브라우니 판매 잔여 모금액을 통해 구룡마을에 연탄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봉사에 자원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연탄 봉사 신청이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부 공동체가 아닌 지인과 친구들도 초대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당일 구룡마을 현장에 모이니 날씨가 유독 추웠고, 마을의 주거환경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 도랑을 건널 수 있도록 철판을 덧대어 만든 임시 다리, 허리를 펴 수도 없을 정도로 낮은 연탄창고를 보며 아기 예수님께서 나셨던 말구유도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약 2시간 30분 동안 마을 곳곳으로 연탄을 나르는 동안 팔이 아프기도, 얼굴과 옷 곳곳에 연탄재가 묻기도 했지만 기쁨으로 섬기는 청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을 전하러 간 그곳에서 따뜻한 온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께서는 고생해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커피를 건내주셨고, 연탄창고 앞에는 고마운 마음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메모가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연말의 분위기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아침을 깨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으며, 이러한 섬김이 모여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Flow Over’ 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윤민지 청년 / 청년부 사랑나눔팀장

청년부
대만선교

ROAR! Life is wild God is good

청년부 대만 선교팀(이하 위리(We're)팀)이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대만 위리지역으로 선교를 떠난다. 이사야 52장 7절을 주제말씀으로 13명의 청년(강현서, 김환, 박혜빈, 안수현, 안윤주, 안정현, 여수희, 이경태, 정대한, 정예솜, 정주영, 조수연, 홍유선)과 2명의 교역자(이충만, 조수희)가 위리지역의 원주민인 푸농족 현지교회에서 선교하게 된다. 대만 도시지역에 나가있던 초종교,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춘절(설 명절) 시기에 맞추어 위리(We're)팀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지역교회 아이들을 모아 겨울성경학교(VBS)를 진행한다. 14일 1층 로비에서는 대만선교를 위한 후원행사 또한 진행되었다.

함글함글

어와나
바이블퀴즈대회

서울지역 바이블퀴즈대회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백석대학교교회에서 어와나 서울지역 바이블퀴즈대회가 열렸다. 바이블퀴즈대회는 년1회 지역별로 개최되며 같은 과정에 있는 친구들과 스피드퀴즈, 객관식 퀴즈, 필기시험 등으로 1년동안 암송하고 공부한 핸드북의 내용을 점점받는 시간이다. 주님의교회 스팅스(만6~초2(만8세))는 1학년 5명, 2학년 3명 총 8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수상했고, 티앤티(초3~초6)는 3학년 6명, 4학년 7명, 5학년 5명, 6학년 6명 총 24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9개, 은메달 7개, 동메달 8개를 수상했다. 이번 퀴즈대회에서는 송민균 어린이가 티앤티의 전과정을 한번에 암송하는 멀티플 복습을 완성하여 수상하였다.

함글함글



늘푸른대학

늘푸른대학의 기쁨과 환희

교회(古稀)를 넘어선 어르신들이 등교하고 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교회에서 운영하는 늘푸른대학이다. 대학에서는 어르신들이 노후를 신앙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기 위하여 체조, 찬양과 예배, 생활정보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 정원은 150명이나 한 때는 지역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1개기에 270명이 수료하기도 했으며, 2009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1까지 총 2,400여명이 수료하였다.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했다가 금년에 재개하였고 올해는 교인 위주로 100여명을 교육하였다. 나는 2008년도에 현직에서 은퇴한 후 15년간 주님의교회를 섬기면서 항존직으로서 다양한 봉사를 해왔다. 제일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는 자세와 신념으로 주차부, 군선교부, 겨자씨 인도자, 고등부와 소년부, 도서관 등 부서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봉사했으며, 교회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항존직에서도 은퇴를 하였다.

이제는 훌거운 마음으로 제3막의 인생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교회 정 집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늘푸른대학의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분으로 대학의 일을 같이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다.

잠시 망설였다. 항존직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인생을 구가하려는 찰나인데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가, 평생을 열심히 봉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은퇴하고도 또 봉사해야 하는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엮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체력과 능력이 있는 한은 얼마든지 봉사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 주에 하루 정도 봉사한다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데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또한 나와 비슷한 연령의 시니어들을 접하면서 그분들의 사고와 행태를 관찰하고 관리하다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이 있을 수 있다는 느낌도 왔다. 주중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에 고정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만이 가능하므로 봉사자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곧바로 긍정의 신호를 보냈다. 정 집사님도 반가워하였고 카톡에서는 새로운 식구를 환영하는 문자와 ‘카톡’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 그 여망을 펼쳐버릴 수가 없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실시하는 첫 개강이다. 스태프는 30명 정도인데 여자분들이 대부분이고, 남자는 장로 두 분과 교무처장, 나를 포함, 네 명뿐이었다. 내가 담당하는 일은 행사팀의 일원으로 주로 몸으로 배우는 일이다. 찬양대석을 준비하고, 예배와 특강을 위한 준비, 음향, 조명, 난방, 매트 설치 등 힘과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고급인력을 노가대로 부려 먹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이것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니 마음은 편했다.

시니어분들이 설렘과 기대를 안고서 대학강당으로 모여들었다. 서로 악수로 반기고 포옹도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는 하지만 고령자분들이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봐야 한다.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발열체크도 병행하였다.

스태프들도 밝은 표정과 환한 미소로 반긴다. 학생이라지만 인생의 선배이자 신앙의 선배들이다. 교회에서 계속 보아왔던 분들이고, 얼마 전 까지도 같이 봉사하고, 지금도 예배는 같이하고 있는 분들이다. 주일이 아닌 평일에, 늘푸른대학에서 학생과 스태프로 만났을 뿐이다. 어르신들은 노년의 생활을 활기차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오셨고, 스태프는 어르신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

움을 주기 위한 봉사자들이다.

하루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데, 오전에는 체조, 찬양과 예배, 특강 및 Sing along,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1시간 동안 특별활동을 각 반별로 진행한다. 특별활동은 시니어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건강과 교양증진, 취미활동과 여가를 즐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8개 강좌(찬양대반, 노래반, 라인댄스 & 워킹반, 문화유산반, 생활체조반, 연필스케치반, 오카리나반)를 편성하였다. 봄, 가을에는 고궁이나 수목원, 유원지를 선별하여 나들이를 하고, 특별행사로 영화감상, 연주회 및 발표회 등 자체행사를 갖는다.

늘푸른 대학은 기본적으로 노인정이나 문화센터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선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가 넘쳐난다. 평생을 배워왔는데 아직 더 배울 것이 있는가. 그러나 배움에는 끝이 없다. 배움을 통해 잃어버린 지식을 다시 되새기고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최신의 정보를 공유한다.

다음으로 대화와 소통의 창구가 된다. 나이를 먹으면 이제까지 가까이서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멀어지고 사라져 간다. 대화를 위해 사람을 찾아다녀야 하고 소통하기 위해 창구도 늘려나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언제라도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노년의 행복이다.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 친교하는데 상당히 기여하리라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건강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늘푸른대학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여기에 크리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르신 대학이라 예배와 친교, 건강 및 취미활동이 가능하고 학생 상호간에 소통은 물론 정보교환과 새 시대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

체계적이며 조직적이다. 어르신들의 참여의식과 열성이 대단하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스태프 그리고 강사분들의 열성도 최고라고 자부하고 싶다. 나도 스태프 봉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학생으로 입교해서 배우고 소통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건강한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다.

금년 나들이는 봄에는 오산에 있는 물향기 수목원, 가을에는 수원에 있는 화성행궁을 다녀왔다. 어르신들은 학창 시절 소풍가는 기분으로 즐거워하였으며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조별로 산책을 하고 주변을 돌아보았다. 때마침 피어난 산야의 꽃들과 풍광을 감상하며 사진을 찍고 노래와 율동을 하였다. 라인댄스반 인원들은 평소 수업시간에 익혔던 라인댄스를 야외에서도 보여줌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마지막 종강의 날, 1년 동안 닦아온 특별활동의 결과를 발표하고 전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놀라운 수준의 성과를 상호 자축하는 감동과 축하의 자리가 되었다. 필요하다면 전교인에게도 늘푸른대학 어르신들이 황혼의 인생을 얼마나 건강하고 멋지게 향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히고 인원을 120명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교회의 많은 시니어분들이 지원하고, 스태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리라 믿는다. 우리는 벌써 내년 3월에 만나 뵈게 될 학생들, 어르신들을 위해 금년을 평가분석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전선재 안수집사 / 3교구

외국인유학생선교부

주님의교회 외국인유학생선교부를 아세요?

1. 이런 부서가 있었나요? 뭐하는 곳이에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2. 한국어 교실 참여 대상은요?

대부분 한국 대학교(대학원)에 유학중이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입니다.

3.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매주 한국어 수업에 50~60명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수준별로 총 10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요?

국가별로는 베트남, 인도, 중국 순으로 많으며, 그 외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한국어는 누가 가르치나요?

우리교회 집사님들인데, 현재 10분의 교사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수업은 반별로 매주 1회 2시간씩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저도 한국어 교사로 참여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외국인유학생들을 도우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 누구나 교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 한국어 수업 말고 다른 활동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1년에 4차례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별로 다양한 교제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8. 우리교회는 언제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나요?

올해로 7년째이며,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증가로 그 동안 참여 학생수 증가와 더불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달 23일 한국문화 체험활동의 하나로 성탄 축하와 송년 파티를 겸해 우리 부서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을 교회로 초청하였습니다. 교회 초청행사는 2022년도에 이어 두번째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며,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 4년 동안은 교회로 초청하는 일이 매우 조심스러워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교회임을 알리고 행사를 진행함에도 거부반응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의 수고를 쏟은 결과, 개인적으로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우리의 동기 또한 순수함을 느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 제3집회실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미고, 탁자와 의자 자리 배치와 더불어 푸짐한 간식을 준비하였으며, 또 각 학생들에게 나눠줄 선물꾸러미를 포장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식당에는 한식 뷔페를 준비하였으며, 시간이 되자 전철 역으로 나가서 도착하는 유학생들을 맞아 교회로 안내하였는데, 추운 날씨에도 6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속속 도착해서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하였습니다.

우선 대식당에 다 모여서 박민규목사님의 기도로 행사를 시작하였는데, 목사님께서 유창한 영어로 기도를 해주셔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제3집회실로 옮겨서 각 반별로 장기자랑과 게임을

하고, 행운권 추첨도 하였으며, 간식을 먹고 준비한 상품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 신형섭장로님께서 오셔서 맛있는 학생들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외국인 유학생 선교부가 더욱 풍성해가는 모양새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과 연구실 일들로 바쁘게 지내는 가운데,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여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인기인 이유도 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진정한 동기는 한국에서 취직하여 정착하거나, 고국에 돌아가더라도 한국기업의 현지 지사에 취직을 하든지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대부분 유학생들의 마음은 가난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고국에서는 석박사 과정에 유학하고 있는 엘리트들이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인 한국에 와서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연구실에서 실험하면서 생활비도 벌어야 하며, 또 졸업 후 취직을 준비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도 익히고 한국문화도 경험해 놓고자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들의 고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자 애써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그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할 수 있는 대로 환대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향기로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며, 때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대화하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는 성경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교회가 우리 부서를 통해 이방인 나그네들인 유학생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을 찾을 것이며, 이들 중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 정착을 하든지 귀국을 하든지 앞으로 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들을 섬기고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이들을 통해 널리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일에 우리 교회는 물론, 많은 교우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서병운 안수집사 / 외국인유학생선교부



부임인사

할렐루야, 인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6교구와 통일선교분과와 봉사분과, 주방운영위원회, 함줄함울을 담당하게 된 차승천 목사입니다. 10년 전 즈음 주님의교회에 아는 분이 계셔서 잠깐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교회를 돌아다니며 이런 저런 이야기 가운데 주님의교회의 비전과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부임 인사를 드릴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승천 목사 / 6교구

세례제도
변경

아동세례 신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아동세례교인을 인정하는 헌법을 2021.11.29. 새로 개정하였다. 유아세례교인이 기존 2세이하에서 6세까지로 확대되었으며, 7세부터 12세의 아동세례교인이 신설되었다. 또한 세례교인/입교인은 13세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제14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1.11.29]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6세 이하)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개정 2021.11.29]
3. 아동세례교인 : (7-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 [신설 개정 2021.11.29.]
4.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자 또는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개정 2021.11.29]

이에 주님의교회도 유아세례대상을 6세로 바꾸고, 아동세례를 신설한다. 유아숲 및 유소년숲 전체 대상 자녀들의 부모에게 설문조사 모바일 툴을 이용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 신청자가 많은 경우 1차로 별도 세례예식을 통해 진행하고 이후 유아세례는 기존 예식을 통하여 진행하며, 아동세례 신청자가 적으면 기존 3부 예배 시 성인 예식과 통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아동세례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3부 성인 세례/입교 예식과 분리해서 4부 예배에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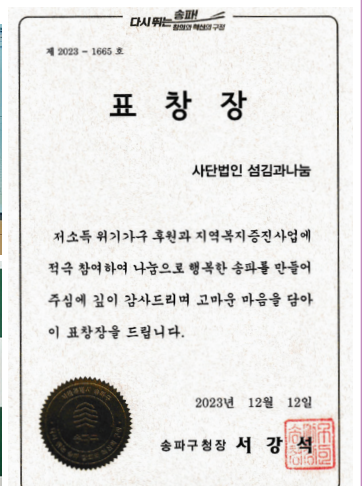
아동세례 교육은 4주간 유소년숲 교역자 현장 교육을 통해 아동세례 문답집(한국장로교출판사)를 사용하나 나이별 학습 능력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함줄함울

(사)섬김과나눔

생명사랑 이웃사랑의 사명을 전파하고 실천하다

(사)섬김과나눔은 송파구청으로부터 ‘2023년 송파구 복지분야 유공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12일에 송파구청에서 개최된 복지분야 유공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법인을 대표하여 최재경 상임이사에 수여했습니다. (사)섬김과나눔은 지역사회의 번영과 행복증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사랑 이웃사랑의 사명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주님의교회가 설립하여 늘푸른대학 운영, 무의탁어르신 생활지원, 이웃사랑 특별지원,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개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후원과 봉사 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철용 안수집사 / (사)섬김과나눔 사무국장



아기나들이



박이서 아기

2023년 8월 29일생

1.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항상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가족이 되도록
2.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몸과 마음이 단단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3. 이서가 부모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양육하도록

아빠 박광재 / 엄마 채재영, 2023년 12월 17일 3부 예배



이루미 아기

2023년 5월 8일생

1. 주님의 한결같은 선함을 닮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2.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마음이 평안하고 강건한 아이로 자라기를
3.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남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가까이 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아빠 이재원 / 엄마 송세미, 2023년 12월 17일 3부 예배

교회사용설명서

<주님과함께> 사용법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큐티(QT)’를 아시나요? ‘큐티(QT)’는 ‘Quiet Time(조용한 시간)’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매일 조용한 때와 곳을 정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뜻합니다.

큐티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눅 5:16)와 같이 예수님이 조용한 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큐티’라는 이름과 방식이 형성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고, 20세기 들어 영국과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서로 권장되었습니다. 큐티 초기에는 성경 읽기, 기도, 죄의 고백, 감사의 기도, 묵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45년, 미국의 초교파적 복음주의기독교학생회에서 큐티를 위한 소책자를 펴낸 뒤, 큐티를 위한 소책자의 발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주님과함께>는 이런 전통에 따라 큐티를 위해 주님의교회에서 2019년 9월 창간한 작은 책자입니다. <주님과함께>는 매월 한 권씩 발행됩니다.

사용 방법

<주님과함께>에는 매일의 큐티를 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큐티를 위해서는 매일 자신에게 가능한 가장 조용한 때와 곳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이른 새벽이 큐티를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 됩니다.

큐티 전, 우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과함께>에는 그날의 주제에 따른 찬송가가 있고,

성경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스스로 이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합니다.

성경 말씀 다음에 나오는 ‘묵상도움’은 그날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그 말씀에 숨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주님의교회 교역자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묵상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날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깨달음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으며, 스스로에 대한 책망,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여, 묵상 후에는 그날의 말씀과 묵상 결과를 자신의 오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용서일 수도 있고, 화해일 수도 있으며, 헌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큐티를 마무리합니다.

일과를 시작하며, 자신의 묵상 내용을 정리해서 다른 분들과 나눕니다. 같은 구절에 대한 묵상이 사람마다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서로 살펴보는 것은 묵상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주님과함께>는 정기구독이 가능합니다. 1년치를 구독하면 13개월 치를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자에게는 만료 1개월 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연장을 돕습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를 위한 정기구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박준범 목사(010-7164-5324)가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과함께>는 교회 입구에 놓인 무인판매대에서 언제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함글함글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

기도할 때 잘못 쓰는 말

예배를 돕는 찬양대

대표기도를 할 때 종종 ‘예배를 돕는 찬양대’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예배를 돕는 행위는 안내하거나 주보를 나눠주거나 주차 관리를 하거나 영상실에서 일하는 등, 예배 순서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예배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찬양대는 단순히 예배를 돕는 기관이 아닙니다. 담임 교역자가 설교를 담당하듯, 엄연히 예배의 독립적인 순서 하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돕는 찬양대’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암암리에 찬양대를 예배 분위기나 돋우려고 봉사하는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기관으로 격하하는 셈입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이미 묵도에서 시작하여 예배가 진행된 지 한참 지났는데도 그렇게 말하면 앞에 진행한 찬양이나 교독문 낭독, 신앙고백의 순서는 예배 순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라는 말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쓰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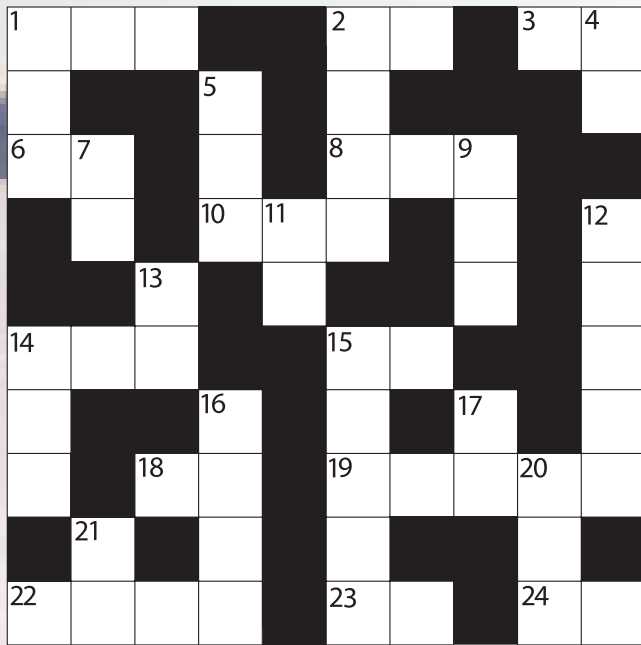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루어지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옳습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은 원칙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 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 대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했다면 끝낼 때는 절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드립니다”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기도를 끝내는 시점에서 1초라도 이전에 발설한 말은 모두 과거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예배 중에 하는 것이며, 예배는 시작하여 마치는 순간까지 모두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인간의 현재적 행위이기 때문에 과거형 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기도합니다’와 같은 현재형 어미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함글함글 /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이복규, 새물결플러스) 참고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전도서 편

이번 호는 <전도서> 편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스스로 자신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지만 인간의 헛됨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76호 잠언 편 정답

지	혜	로	운	자		미	련	한	자
식				기	업			조	
의	인	의	길			르		각	기
근		지		많	은	무	리		빠
본		할				엘			하
		이	스	라	엘	왕		근	심
성			올						
문	짝		깊	은	바	다		독	주
어			은						권
귀	인		곳			어	리	석	은
									자

가로 힌트

- 포도나무 과수원. 이스라엘에서는 대개 언덕이나 비탈에 만들었으며 들짐승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세웠다. (전 2:4)
- 지하수를 파올리기 위해 만든 시설. 물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판 후, 오물이 들어가지 않게 벽을 쌓고 뚜껑을 만들어 덮기도 했다. (전 12:6)
- 권력과 능력.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았다. (전 8:4)
-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음. 같은 글자이지만 한자가 다른, '자'의 의견을 내세움이라는 단어도 있다. (전 8:8)
- 형태나 성질이 서로 같은 것. "내가 해 아래에서 ○ ○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전 6:1)
- 전도서의 저자가 스스로를 일컫는 말. 종교적인 모임에서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의미한다. (전 1:1)
- 어떤 지역이나 상황에서 만들어지거나 생산된 것. "땅의 ○○○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전 5:9)
- 매우 좋아하여 애끼고 위하는 마음. 이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말하기도 한다. (전 3:8)
- 어떤 개념, 상황, 사물 등을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살펴보는 일. 보통 본질을 밝히거나 원리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학술적 활동을 말한다. (전 1:13)
-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 ○○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 3:17)
- 가지에 가시가 솟아 있는 나무. 참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수의 이름이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지역 광야에 자라며 가시숲을 이루는 여러 나무를 두루 말한다. '시인과 촌장' 하덕규가 지은 노래도 있다. (전 7:6)
- 몹시 성을 냄.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가 그에게 있느니라" (전 5:17)
- 여섯과 여덟 사이에 있는 수. 백설 공주와 함께 지낸 난쟁이의 수이며, 무지개 색깔의 수이다. (전 11:2)

세로 힌트

- 포도를 주 원료로 만든 술. 전도서에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전 10:19)
-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 전도서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 ○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 7:5)
-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나 역량.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이 있게 하느니라" (전 7:19)
- 많은 시간이 지나간 이전.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 ○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 1:10)
- 오래 사는 삶. 해, 산, 돌, 물,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은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이것을 상징하는 사물이다. (전 6:3)
- 지혜로운 사람. 전도서에서는 이런 사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전 2:14)
- 원래대로. 어떤 일을 했다가 돌이켜서 하는 행위나 마음을 뜻하는 부사이다. (전 3:22)
- 착한 사람과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 ○○,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전 9:2)
- 어떤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전 5:13)
-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태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 ○○이니라" (전 12:13)
- 살구 열매를 맺는 나무. 장미과의 낙엽 활엽 교목이다. (전 12:5)
- 어떤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결말.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전 2:19)
- 선하지 않은 일. 전도서에서는 아예 태어나지 않아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보지 못한 것이 가장 복되다고 했다. (전 4:3)
- 어쩌다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전 4:10)

2024 함즐함울 신춘문에
시 부문 당선작

모를 때

임성수

땅을 모를 때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 큰 나무를 보세요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땅 위 나무의 크기만큼은 아닐 겁니다

땅은 작은 뿌리를 받고

큰 나무를 내줍니다

그런데

작은 뿌리조차 드리지 않은 존재에게

한없이 큰 나무가 주어졌음을 알았습니다

함즐함울 공지

제4회 함즐함울 신춘문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2024년 함즐함울 신춘문에 당선작

시 부문 : <모를 때> 임성수 집사(5교구)

수필 부문 : 당선작 없음

간증 부문 : 당선작 없음

응모 현황과 심사 경위, 심사평과 당선자 소감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2024년 함즐함울 신춘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출판부

광고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부모님의 신앙이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즌1 자녀축복 새벽기도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매월, 부서별 주관으로 찬양을 올리드립니다.
* 자녀들과 찬양팀들은 찬양 연습 후 찬양대석에서 함께해 주세요.
- 자녀축복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다음세대 자녀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예배를 마친 후 로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 가족이 참여하면 더 많은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즌 1(2,3,4,5월) 자녀축복 새벽기도회에 모두 참여하면 개근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로비에서 물품체크 및지 않아주세요.

날짜	2/17(토)	3/16(토)	4/13(토)	5/11(토)
주관	유소년울	형소년울	유아울	유소년울

2024 늘푸른대학 학생 모집

2009

등록 안내

- 대상** 65세 이상 주님의교회 교인 (1959년생부터)
- 장 원** 120명 (선착순)
- 등록일자** 2.6(화) 오전10:00~12:00
- 등록장소** 지하층 중예배실 로비 (주민등록증 지참)
- 등록금** 1학기 : 10만원 / 2학기 : 8만원
- 학사일정** 3/5~12/3 (매주 화 10시~2시 / 연30회)
- 프로그램** 예배, 찬양/ 신앙강좌, 건강강좌, 교양강좌, 상열봉/ 공연 및 연주회/ 영화/ 나눔이

2024

제13기 개강 : 2024. 3.5(화) 오전10시 / 중예배실

특별활동반

찬양대반	노래반	라인댄스&워킹반	문화유산반
20명	25명	15명	15명

스마트폰반	스트레칭요가반	연필스케치반	오키리나반
15명	10명	10명	10명

학사 프로그램

체조	예배	중식
10:00	10:30	11:00
찬송	특별 프로그램	특별활동반
	강좌 (신앙, 건강, 교양) / 상열봉	
	공연 & 연주회 / 영화	

문의 : 정현영 교무처장 / 010-5339-6464

교회일정

1/21(주일)	정기당회, 신임서리집사 교육1
1/24(수)	4/4분기 제직회
1/28(주일)	제직수련회, 신임서리집사 교육2 및 수료
1/31(수)	공동의회
2/7(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6교구 주관)

알립니다

1. 2024 신임 서리집사 대상 교육

대상 : 만30세 이상, 교회등록 후 1년 이상 된 세례 (입교)교인

일시 : 1/21, 1/28(2회) 오후 2:30~3:30

장소 : 소예배실(1층)

* 교육에 두 번 다 참석하셔야 서리집사로 임명됩니다.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즐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즐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